

드라마 속에 재현된 외국인과 한국의 다문화주의

- I. 문제제기
- II. 선행연구: 미디어와 다문화주의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IV. 연구결과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주혜연 · 노광우

초 록

국내 거주 외국인 100만 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미디어에 등장하는 외국인의 비율도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대중적인 미디어에서 인종 소수자인 외국인을 정형화된 모습으로 재현할 경우, 이를 보는 한국인의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한국의 지상파 3사 드라마에서 외국인이 얼마나 등장하고 어떤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는지를 유형화해 한국 드라마의 민족적 정경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지상파에서 외국인이 등장하는 드라마는 전체 드라마의 6.4%로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외국인의 극 중 역할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조연이나 단역에 머물고 있었다. 한편, 극 중 역할을 유형화한 결과 크게 동경집단과 동정집단, 근접집단, 기타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동경집단에는 미국·유럽 출신의 백인과 백인혼혈인이 속했는데, 대다수가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성들로 호감을 주는 외모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묘사되었다. 반면 동정집단은 베트남, 필리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유색인종과 흑인혼혈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여성의 비율이 높고 사회 하류층으로 재현되는 경향이 있었다. 근접집단의 경우 우리나라와 역사적 관계가 깊은 일본과 중국 출신의 인물들이 속해 있는데, 일본인의 경우 경제적인 부(富)와 한국인과의 경쟁 및 우호관계가 강조되고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본 결과, 한국 드라마에서 특정 인종과 민족에 대한 고정관념이 상당수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일부 드라마에서 고정화된 이미지를 탈피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외국인의 삶을 재현하고자 했으나, 이런 시도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가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드라마에 등장하는 외국인의 면모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한국인에게 내재된 고정관념을 밝히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다문화주의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외국인, 인종소수자, 텔레비전 드라마, 다문화주의, 고정관념

I. 문제제기

2013년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인 144만 5631명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전체 인구의 2.8%에 해당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13). 지난 1990년에만 해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5만 명이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2000년에 49만 명으로 10년 만에 약 10배 증가했으며 2007년 마침내 10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국토연구원(2010)에 의하면 국내 거주 외국인인 2020년에는 한국 전체 인구의 약 5%, 2050년에는 약 1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이라도 하듯, 국내 텔레비전과 영화에서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배역도 다양해졌고 그 수도 부쩍 많아졌다. 일부에서는 단역에 그치지 않고, 비중 있는 역할을 소화하면서 뚜렷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한 예로 지난해 종영한 MBC 드라마 <더킹 투하츠>(2012)에서 사만다 데니얼이란 미국인 배우는 잔혹한 고문 장면과 비참한 최후를 실감나게 연기해 국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은 드라마 뿐만 아니라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태국 배우 타나용 윈트라쿨은 영화 <아저씨>(2010)에서 뛰어난 액션 연기로 주목을 끌었다. 또한 귀화여성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국회의원 자리에 오른 이자스민의 경우 영화 <완득이>(2011)에서 배우 유아인의 엄마로 출연해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초기 혼혈 배우의 출연으로 시작된 국내 브라운관과 은막의 세계는 어느새 외국인 배우 한 두 명의 출연은 당연하다시피 여겨질 정도가 되었지만, 외국인 배우들의 대중매체 출연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현재 한국관광공사 사장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참, 그리고 로버트 할리, 이다 도시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1990년대부터 서서히 방송에 출연하면서 한국인에게 친숙하게 다가서기 시작했다. 그 후 다니엘

헤니, 데니스 오, 리키 김, 줄리엔 강 등 혼혈 배우들이 브라운관에서 잇단 성공을 거두면서 외국인 배우들의 드라마와 영화 진출이 더 활발해진 것이다.

한국의 대중매체에서 이처럼 외국인 캐릭터가 풍성해진 것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현실을 자연스럽게 반영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외국인을 묘사할 때 특정 인종과 민족에 대한 고정관념이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백인이나 백인계 혼혈인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상당한 지적, 문화적 자산을 지닌 것으로 그려진다. 반면 흑인이나 동남아시아인, 그리고 이들과의 혼혈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무지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다.

그런데 드라마와 영화처럼 대중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미디어 장르에서 외국인을 정형화된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재현할 경우, 이들에 대한 이미지는 특정한 방향으로 고착될 수밖에 없다. 텔레비전에서 그려지는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고정화된 이미지는 해당 인종과 민족에 대해 실제와 다른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묘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관련해서도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할 수 있다 (Entman, 1994).

이러한 점을 주목한다면 국내 미디어에 등장하는 외국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되고 재현되는지 살펴보는 일은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한국 드라마 내에서의 외국인 재현 양상을 분석해 인종 소수자인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동화되고 배제되는지를 살펴본 후 이를 통해 한국의 다문화주의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II. 선행 연구: 미디어와 다문화주의

1. 미국의 다문화주의 연구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에 대한 논의 및 연구는 다인종 이민국가인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Bogle, 2001; Guerrero, 1993; Shohat and Stam, 1994). 이후 소수민족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영국과 뉴질랜드 등지로 점차 퍼져나갔다. 오늘날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포함한 세계 각국으로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새로운 사회통합의 원리인 다문화주의는 한 사회 내에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 집단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하게 한다. 종래 여러 국가에서 사적인 영역에서는 문화적 차이를 허용하면서도 공적 영역에서는 시민으로서 단일한 공통문화를 갖도록 강제하였다. 이에 반해 다문화주의는 공적 영역 내에서도 문화의 복수성과 다양성이 포용되어야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강휘원, 2006).

인종적, 민족적 구성이 다양한 미국에서 다문화주의나 소수민족에 대한 연구는 매스미디어 연구의 주요 연구주제로, 다양한 방식과 주제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마스트로(Mastro, 2008)는 미국에서 대표적인 소수 인종·민족인 라틴계, 흑인계, 아시안계, 그리고 원주민계 아메리칸이 TV, 영화, 광고 등 각종 미디어에서 어떤 비율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 분석했다. 연구결과, 흑인을 제외한 라틴계와 아시안계, 원주민계의 경우 미디어에서 묘사되는 비율이 실제 인구비율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인종마다 묘사방식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고정적이고 전형적인 이미지, 그리고 한정적인 역할로 표현되고 있었다.

소수 인종과 민족에 대한 이 같은 편견적 묘사경향은 범죄보도에 있어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범죄와 무관한 뉴스의 경우 백인과 흑인은 비슷한 빈도로 등장하지만, 범죄가 기사의 토픽일 경우에는 흑인이 백인보다 거의 두 배 정도의 비율로 등장하고 있다(Romer, Jamieson, & DeCoteat, 1998). 또한 흑인은 실제 범죄통계보다 더 높은 비율로 가해자로 등장하는 반면, 백인은 현실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Dixon & Linz, 2000a;

2000b). 비율 뿐만 아니라 묘사방식에서도 미국 사회의 주류인 백인 범죄자와 소수인종 범죄자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미국 학내 총기사건인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기사건과 버지니아 공대 총기사건 보도를 비교한 연구에서 아시아인 범인인 버지니아 사건의 경우 분석대상 미디어의 3분의 1 이상이 가해자의 인종을 부각해서 뉴스를 다루고 있었다(Park, Holody, & Zhang, 2012). 백인이 범인인 컬럼바인 사건과는 달리, 인종이나 민족성, 이민자 지위와 관련해 의제설정이나 프레이밍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미국 대중매체에서 인종적 소수자에 대해 이 같은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미디어 소유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 방송시장의 경우 유색인종과 여성의 점유율은 5퍼센트가 채 되지 않는다. 백인남성이라는 기득권층이 미디어 산업에서 이들의 진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Harwood & Roy, 2005). 결국 미디어 산업에서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그룹에 소수 인종과 민족의 사람들이 속하지 못할 경우 해당 인종과 민족은 미디어를 통한 재현에서도 소외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최근에는 다양한 미디어가 등장하고 개인마다 선호하는 미디어가 달라지면서 미디어 시장에서도 인종 소수자에 대한 묘사방식에 있어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실제로 외국인이나 여성 등 사회 소수자를 바라보는 뿌리 깊은 문화적 편견은 프로그램이나 장르, 매체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Morgan, Shanahan, & Signorielli, 2008).

2. 한국의 다문화주의 연구

한국사회에서 다문화주의 담론이 유통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서구의 현황을 소개하거나 간단히 언급하기 위해 쓰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한국사회가 다문화주의를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다문화주의 담론이 2005년경 한국사회에서 급격히 부상하기 시작한 것은 급증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처방안 모색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때부터 ‘다문화’라는 용어가 정부 정책과 이주노동자운동 진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국제결혼 가정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증가하게 되었다(이선옥, 2007). 결정적으로 2006년 한국계 흑인인 하인스 워드가 미국 슈퍼볼 경기에서 MVP를 수상하고 한국을 방문하면서 다른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는 다문화주의가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정의철·이창호, 2007). 일명 ‘워드 효과’로 인해 각종 미디어가 혼혈가정과 국제결혼, 이주노동자 실태 등을 재조명하며 한국이 다문화주의를 수용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논리를 제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문화주의에 관한 국내 연구는 그동안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념적 고찰이나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미디어 분야의 경우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미디어 프레임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정치·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인종적 소수자는 언론재현이라는 차원에서도 왜곡되고 소외되고 있다(김예란, 2005). 백선기(2005)에 의하면 한국의 미디어는 인종적으로 다른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고려하지 않고, 선정적이고 흥미위주로 보도하고 있으며, 기득권 세력의 일방적인 시각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인종적 소수자들은 장애인이나 비정규직 노동자에 비해서도 훨씬 더 주목받지 못하는 타인으로 프레임 되고 있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심각해지면 결국 미디어가 외국인 체류자는 잠재적 범법자라는 편견과 결혼이주 가족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한국인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디어 속에서 백인과 동남아시아인의 재현에 위계적 차이를 내포하고 있을 경우,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인종별로 스테레오타입(stereotype)화 될 수도 있는 것이다(김세은·김수아, 2008). 스테레오타입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많이 사용되고 유지되는 신념체계로, 보통 성별이나 인종, 연령, 직업 등의 다양한 유

형들로 형성되는데 흔히 과장되고 왜곡되는 특징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대중매체는 이러한 스테레오타입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cArthur & Resco, 1975). 리프만(Lippmann, 1957)이 지적한 것처럼 미디어는 ‘우리 머릿속의 상’을 구축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도 미디어의 묘사 방식대로 스테레오타입을 형성하고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인종 소수자에 대한 미디어의 이 같은 영향력에 주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한국사회가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미디어에 등장하는 외국인의 다양한 면모를 분석해 한국인의 신념체계에 내재된 고정관념을 밝히고, 이를 통해 올바른 다문화주의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민이나 국제결혼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과 고정관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는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을 확대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대중 매체 중 하나는 바로 텔레비전이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편견적인 묘사가 지상파 드라마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드라마를 즐겨 보는 한국인의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한국의 지상파 드라마에서 한국사회의 인종적 소수자인 외국인이 얼마나 등장하고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내용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외국인이 등장하는 드라마의 제작비율과

제작추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외국인의 극 중 역할 비중과 인구사회학적 속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외국인의 극 중 역할은 어떻게 유형화시킬 수 있는가.

2. 연구방법

분석대상은 지상파 3사인 KBS, MBC, SBS에서 방영된 전체 드라마 가운데 외국인 등장 드라마이다. 분석기간은 다문화주의 담론이 한국사회에 급격히 부상한 시기인 2005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8년간으로 설정하였다. 드라마의 내용분석은 등장인물 소개를 바탕으로 실시했으며, 이는 각 방송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했다. 등장인물 소개에는 이미 제작자의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드라마를 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드라마 속에 등장한 인종적 타자에는 순수 외국인 뿐만 아니라 혼혈인도 포함시켰다. 본래 외국인이라 함은 자국 국적이 아닌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자를 뜻하지만, 드라마를 통해서 한국 국적의 취득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일상적으로 외모나 생김새를 통해 외국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이 아닌 타인종과 타민족을 기준으로 외국인 등장여부를 분석하였다.

한편, 방송시간과 분량에 관계없이 분석기간에 방영됐던 드라마 전체를 대상으로 외국인이 등장하는 드라마를 찾았으나, 사극과 시대극 그리고 외국합작 드라마, 해외 윌로케이션 드라마의 경우 해당 드라마의 특수성을 고려해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사극과 시대극의 경우 현대 한국사회 및 현대극의 다인종적 특성과는 별개의 연구주제이다.

IV. 연구결과

1. 외국인 등장 한국드라마의 제작비율과 제작추이

분석기간 내 KBS와 MBC, SBS에 방영된 드라마 수는 총 512편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외국인이 등장하는 드라마는 모두 33편으로, 이는 전체 드라마 대비 6.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방송사별로 외국인 등장 드라마를 보면, KBS가 152편 중 9편, MBC가 162편 중 10편, 그리고 SBS가 198편 중 14편을 차지하고 있었다. 3사의 외국인 등장 드라마의 비율은 각각 5.9%, 6.1%, 7.0%로 모두 10% 이내로 나타나, 외국인이 나오는 드라마가 매우 적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KBS		MBC		S B S		합계	
	전 체	외국인	전 체	외국인	전 체	외국인	전 체	외국인
2005	18	0	20	1	32	1	70	2(2.8%)
2006	22	1	22	0	25	1	69	2(2.9%)
2007	19	3	22	0	24	3	65	6(9.2%)
2008	16	0	22	1	24	1	62	2(3.2%)
2009	18	1	16	3	21	2	55	6(10.9%)
2010	21	0	21	2	23	0	65	2(3.0%)
2011	17	3	22	2	25	2	64	7(10.9%)
2012	21	1	17	1	24	4	62	6(9.6%)
합계	152	9 (5.9%)	162	10 (6.1%)	198	14 (7.0%)	512	33 (6.4%)

표 1. 방송사별 · 연도별 외국인 등장 드라마 수

계속해서, 외국인이 등장하는 한국드라마의 제작추이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나타났다. 그래프의 형태를 보면, KBS, MBC,

SBS의 지상파 3사 모두 비슷한 수준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3사 합계 그래프를 보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외국인 등장 드라마 수가 다소 늘기는 했으나, 개별 방송사로 보면 눈에 띄만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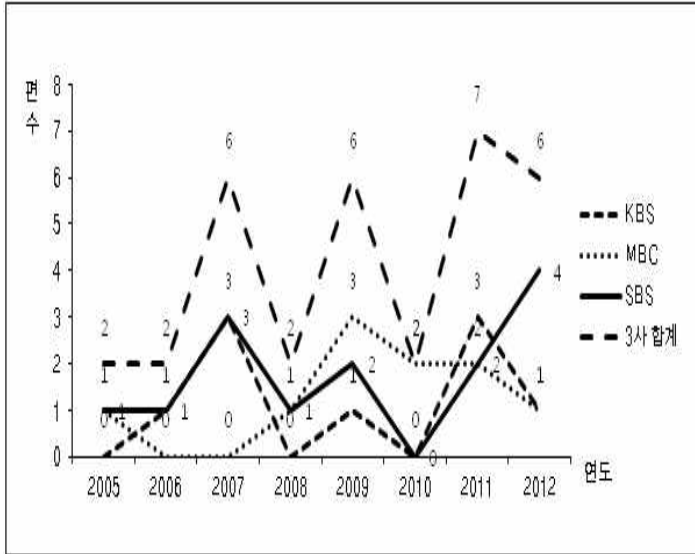


그림 1. 외국인 등장 드라마 제작추이

2. 외국인 역할 비중 및 인구사회학적 속성

분석기간 내 KBS와 MBC, SBS의 지상파 3사에 방영된 512편의 드라마 중 외국인이 등장하는 드라마는 총 33편이었다. 이 드라마들을 외국인 배우의 극 중 역할 비중¹⁾과 인구사회학적 속성을 통해 분류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배우의 역할은 단역이 가장 많고 조연과 주연이 그 뒤를 이었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 비슷한 분포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1) 드라마에서 주인공을 맡은 사람을 '주연', 주연을 도와 극을 전개해 나가는 사람을 '조연', 조연보다는 비중이 크지 아니한 역할을 맡은 사람을 '단역'으로 분류했다. 여기에서의 '단역'은 비중이 매우 적음을 의미하는 구분으로 일회성 출연을 뜻하지 않는다.

20, 30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직업군에 있어서는 전문직보다는 비전문직이나 무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오스트리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 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일본	중국	미상	합계
비 중	주연	1	1	2	1	0	0	0	0	1	0	0	6
	조연	3	0	1	0	0	1	1	0	1	0	2	9
	단역	7	0	2	2	1	0	1	1	3	1	0	18
성 별	남성	10	1	0	2	0	1	0	0	1	0	0	15
	여성	1	0	5	1	1	0	2	1	4	1	2	18
연 령	0-9세	0	0	0	2	0	0	0	0	0	0	0	2
	10-19세	0	0	0	0	0	0	0	0	1	0	0	1
	20-29세	4	0	5	1	1	1	2	1	3	1	0	19
	30-39세	5	1	0	0	0	0	0	0	1	0	2	9
	40-49세	1	0	0	0	0	0	0	0	0	0	0	1
	50-59세	1	0	0	0	0	0	0	0	0	0	0	1
직 업 군	전문직	7	1	0	0	0	0	0	0	2	0	1	11
	비 전문직	1	0	2	1	0	1	1	1	0	1	0	8
	무직	3	0	3	2	1	0	1	0	3	0	1	14
	기타												
합	계	11	1	5	3	1	1	2	1	5	1	2	33

표 2. 외국인 등장인물의 출신지 및 극중 비중과 인구사회학적 속성

이 같은 전체 결과를 다시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드러났다. 먼저, 인종 및 민족적 배경이 미국·

유럽계 백인, 백인혼혈의 경우 여성보다는 남성이 대다수이며 주연과 조연의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었고 직업군은 의사와 변호사 등 비교적 고임금을 받는 전문직으로 묘사되었다.

반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권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권 등장인물의 경우 주연이나 조연이 일부 있긴 하지만 단역으로 등장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높고 연령별로는 20대, 사회적으로는 저임금-주변부 노동자층이 대다수인 것으로 재현됐다. 한편, 일본과 중국의 경우 단역의 비중이 높으며, 여성과 20대가 많고 경제력은 대체로 우세집단에 속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외국인 배우의 역할 묘사

지금까지 외국인이 등장하는 드라마의 제작비율과 제작추이를 분석하고, 이들의 극 중 역할비중과 인구사회학적 속성까지 살펴봤다. 마지막으로 한국 드라마에서 인종적 소수자인 외국인이 어떠한 유형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표 3>과 같이 ‘동경집단’ 과 ‘동정집단’, ‘근접집단’, 그리고 ‘기타집단’ 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드라마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인이나 유럽인 그리고 이들과의 백인계 혼혈인은 긍정적인 분위기로 묘사되고 있었다. 이 같은 재현방식은 무의적으로 이들에 대한 동경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이 그룹을 ‘동경집단’ 으로 설정하였다. 반면 동남아시아인과 중앙아시아인, 흑인계 혼혈인은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동시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회하류층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이에 이들 집단은 ‘동정집단’ 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일본인과 중국인 등 동북아시아권에서 온 등장인물들은 앞서 언급한 두 집단에는 넣기 힘든 부분이 있다. 이들은 한국과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근접해 있고 사회·경제적으로도 한국인과 우열을 가르기 어려운 집단이기 때문에 ‘근접집단’ 으로 칭하였다. 끝으로 드라마에서 인물의 개인적 특성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는 경우는 기타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동경집단 : 미국 · 유럽	동정집단 :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근접집단 : 일본 · 중국	기타집단 : 출신지 미상

표 3. 외국인 등장인물의 집단 유형

1) 동경집단

동경집단에 속한 미국인이나 유럽인 그리고 이들과의 백인계 혼혈인은 대체로 긍정적이고 밝은 분위기로 한국 드라마에서 묘사되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외모가 수려하고, 호감을 주는 성격을 지닌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등장인물 소개에서는 "은후하고 너그럽다,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 입양아라는 콤플렉스가 없다(내이름은김삼순, 2005)", "호기심 많고 웃음 많은(날아오르다, 2007)", "외모까지 수려해(마녀유희, 2007)", "매력적인 남자(온에어, 2008)", "좋은 집안의 잘생긴(인연만들기, 2009)", "호텔을 상속받는(신기생뎐, 2011)", "재능을 인정하고 격려하는(패션왕, 2012)" 등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이들은 어릴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재능을 키운 것으로 묘사되며, 상당한 지적 수준을 지닌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서양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갖고(내이름은 김삼순, 2005)", "10대에 천재성을 인정받은(마녀유희, 2007)", "어려서 음악 신동으로 기대(봄의왈츠, 2006)", "로스쿨에 진학(온에어, 2008)" 등으로 묘사되었다.

직업 역시 주로 의사, 변호사, 글로벌 매니저, 스타 셰프, 호텔 총지배인 등 비교적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직에 속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직업군은 동경집단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점을 무의식적으로 암시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런 설정이 반복

되면 시청자로 하여금 해당 인물의 사회적 지위를 이들의 인종적 이미지와 일치시키고, 사회적 지위에 대한 동경을 백인 우월집단에 대한 동경으로 전이하게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백인중심의 인종적 위계의식을 당연시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연도	방송사	제목	이름	출신지 · 인종	비 중	성 별	연 령	직업·특 이점
2005	MBC	내이름은 김삼순	헨리킴	미국 (백인 혼혈) 오스	주	남 성	30 대	의사
2006	KBS	봄의왈츠	필립	트리아 (백인 혼혈)	주	남 성	30 대	글로벌 매니저
2007	SBS	날아오르다	다니엘 오닐	미국 (백인)	단 역	남 성	20 대	대학생· 의사부모
2007	SBS	마녀유희	조니 크루거	미국 (백인 혼혈)	조	남 성	30 대	스타셰프
2008	SBS	온에어	에이든 리	미국 (백인 혼혈)	조	남 성	20 대	패션모델
2009	MBC	보석비빔밥	카일	미국 (백인)	조	남 성	30 대	승려 지망생
2009	MBC	인연만들기	알렉스	미국 (백인)	단 역	남 성	20 대	변호사 영어강사
2011	SBS	신기생던	카일	미국 (백인)	단 역	남 성	30 대	· 호텔 상속인
2012	SBS	아름다운 그대에게	다니엘	미국 (백인 혼혈)	단 역	남 성	30 대	.

2012	KBS	울랄라부부	존	미국 (백인)	단 역	남 성	50 대	호텔 총지배인
2012	SBS	패션왕	.	미국 (백인)	단 역	여 성	40 대	뉴욕패션 스쿨학장

표 4. 동정집단 등장인물의 극중 비중과 인구사회학적 속성

2) 동정집단

동정집단에 속한 동남아시아인과 중앙아시아인은 드라마 속에서 대체로 부정적이고 어두운 이미지로 나타난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 낮은 위치에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정집단은 극 중에서 남녀, 연령 불문하고 대부분 저임금 노동자이거나 직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으로 묘사되고 있다. "세 들어 살면서, 한 푼 두 푼 잔돈까지 모으며(미우나고우나, 2007)", "가정부로 일하며 혼자서 애지중지 딸을 키운(황금신부, 2007)", "너무 가난해서 돈을 벌기 위해(사랑해올지마, 2008)", "동생들 공부시킬 목적으로 한국까지 날아와(로맨스타운, 2011)" 등으로 소개되었다.

하지만 이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 집단은 대체로 생활력이 강하고 순박하며 착한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다." 가족들에게 꼬박꼬박 월급을 부치는 지독한 짠순이(미우나고우나, 2007),

"영롱하고 순수하고 단단한, 밝고 맑고 투명한 순수의 결정체, 집념의 소유자(황금신부, 2007)", "마음만은 따뜻(사랑해올지마, 2008)", "순수함 그 자체(사랑은 아무나하나, 2009)", "착하고 반듯(로맨스타운, 2011)" 등의 표현이 그런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동정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한국에 오게 되는데 첫째,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일을 하고자 온 것, 둘째, 한국인 남성과 사랑에 빠져 그 남성을 쫓아 한국에 입국한 것이다. 그런데 후자, 즉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여성의 경우 대다수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의 경우 남편에게 폭력

을 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연도	방송사	제목	이름	출신지 · 인종	비 중	성 별	연 령	직업
2005	SBS	하노이신부	티브	베트남	주 연	여 성	20 대	대학생
2006	SBS	깜근이엄마	조명근	필리핀 (혼혈)	주 연	남 성	9세	초등학생
2007	KBS	미우나 고우나	쏘나	카자 흐스탄	단 역	여 성	20 대	노동자
2007	KBS	산넘어 남촌에는	하이엔	베트남	조 연	여 성	20 대	주부
2007	SBS	황금신부	누엔 진주	베트남	주 연	여 성	20 대	결혼정보 회사근무
2008	MBC	사랑해 울지마	산토스	네팔	조 연	남 성	20 대	노동자
2009	SBS	사랑은 아무나하나	얀티	인도네 시아	단 역	여 성	22 세	원주민
2009	MBC	외인구단	하극상	미국 (흑인 혼혈)	단 역	남 성	20 대	야구선수
2010	MBC	황금물고기	레베카	우즈베 키스탄	조 연	여 성	22 세	주부
2011	KBS	로맨스타운	뚜자 르린	베트남	단 역	여 성	20 대	가사 도우미
2011	MBC	오늘만 같이아라	크리스 티나	필리핀	단 역	여 성	20 대	어학원 근무
2011	KBS	오작교 형제들	황국수	필리핀	단 역	남 성	9살	초등학생
2012	SBS	옥탑방 왕세자	베키	우즈베 키스탄	단 역	여 성	20 대	방송단역

표 5. 동정집단 등장인물의 극중 비중과 인구사회학적 속성

김명혜(2008)는 드라마 <황금신부>가 이주 여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긴 했지만 이주 여성을 온정주의적인 시각으로 타자화하고 계급과 민족의 차원에서 여성들 간의 갈등관계를 설정함으로써 가부장적인 민족주의를 강화한다고 비판했는데, <황금신부> 이외의 다른 드라마에 나오는 이주여성들도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들과 한국인 남성과의 로맨스의 경우 한국남성이 글로벌한 로맨스를 성취하는 글로벌한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장치로 작동한다(김예란·유단비·김지윤, 2009).

그리고 동정집단 혼혈자녀의 경우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는 등 한국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한국땅에서조차 몰아내려고(깜근이 엄마, 2006)”, “딸 보배가 베트남 혼혈이라고 차별을 당하지나 않을까 늘 노심초사(산넘어 남촌에는, 2007)”, “손가락질 받는 이방인의 사생아(황금신부, 2007)” 등으로 묘사되었다. 이명현(2008)은 이주 여성의 경우 ‘한국의 며느리’라는 가족주의를 내세워 동화의 대상으로 간주되지만, 이들이 낳은 혼혈아동들은 동화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배제의 대상이 됨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흑인혼혈인의 경우 같은 미국계인 백인혼혈인과 달리 동정집단에 속해 있는데, “한국인도 그렇다고 외국인도 아니라는 어정쩡한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외인구단, 2009)” 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앞서 백인 혼혈인에 대한 묘사에서는 대부분 입양 콤플렉스가 없고 정체성에 대해서도 고민한 흔적이 없는 것과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

3) 근접집단

근접집단에는 주로 일본인과 중국인 등 주로 동북아시아권에서 온 등장인물들이 포함된다. 일본인과 중국인은 과거 특수한 역사적 관계 때문에 주로 우리나라 시대극에 많이 등장한다. 반면 현대극에서는 일본인과 중국인의 등장비율은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일본인의 경우 드라마에서 대부분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으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일본과 중국 여성은 한국남성들이 선호하는 지고지순한 여성으로 재현되는 경향이 있다. 등장인물 소개에는 “서열 1위의 막강실세인 아버지(된장군과낫또짱의결혼전쟁, 2010)”, “수천억대의 재력가인(드라마의제왕, 2012)”이라는 수식어로 이들 집단의 경제력을 보여주고 있고, “일본 남자들 뿐만 아니라 한국 남자들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순종적이고 가정적인(된장군과낫또짱의결혼전쟁, 2010)”, “귀엽고 사랑스러운(두근두근달콤, 2011)”, “절세미모, 순정적 사랑(드라마의제왕, 2012)” 등으로 여성을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여성이 드라마에서 순종적이고 지고지순한 것으로 묘사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영화 <공동경비구역>(2000)과 <파이란>(2001)을 보면 소피 장(이영애)과 파이란(장백지)이 각각 한국-스위스 혼혈과 중국 여성으로 등장한다. 동시대 한국영화에서 남성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남성을 보조하는 인물들로 외국계 여성을 설정한 것이다(김소영, 2003). 드라마에서 외국 여성이 순정적 인물로 묘사되는 것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과거 한국여성의 미덕이라고 여겨져 왔던 순종성을 외국인이지만 인종적으로 유사한 일본이나 중국 여성에 투영한 드라마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것이다.

한편, 근접집단의 인물들은 한국인과의 갈등이나 경쟁관계, 또는 한류를 통해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 온 인물들로 그려지기도 한다. “할머니의 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바로 일본(집으로가는길, 2009)”, “한국인인 주인공인 지훈과 사사건건 부딪히며 경쟁(싸인, 2011)”, 혹은 “한국 드라마의 광팬(두근두근달콤, 2011)”,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 일본인지만 한국어에 능통(드라마의제왕, 2012)” 등으로 묘사되었다.

사실 근접집단에 속한 일본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깝고 다른 권역에 비해 과거부터 교류가 많았다는 점에서 훨씬 더 친숙하게 다가온다. 또한 한국인과 중국인, 일본인의 인종적 유사성 때문에 등장인물들을 한국인 배우가 맡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도 친밀함이 느껴진다(<미스 리플리>의 유우역을 맡

은 박지연, <두근두근 달콤>의 왕밍밍 역을 맡은 이소윤). 그러나 최근에는 중국이나 일본 배우들이 해당국적의 인물을 연기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된장군과 닛토짱의 결혼전쟁>의 시바타 다카코 역을 맡은 아키바 리에, <드라마의 제왕>의 아키꼬 역의 후지이 미나).

연도	방송사	제목	이름	출신지 · 인종	비중	성별	연령	직업· 특이점
2009	KBS	집으로 가는길	히로	일본	조연	남성	20대	패션모델
2010	MBC	된장군과 닛토짱의 결혼전쟁	스즈키 다카코	일본	주연	여성	20대	대학생· 재력가 집안
2011	KBS	두근두근 달콤	왕밍밍	중국	단역	여성	20대	여행 가이드
2011	MBC	미스 리플리	유우	일본	단역	여성	10대	총리 딸
2011	SBS	싸인	시가노 레이코	일본	단역	여성	30대	부검의
2012	SBS	드라마의 제왕	아키꼬	일본	단역	여성	21세	재력가 부인

표 6. 근접집단 등장인물의 극중 비중과 인구사회학적 속성

4) 기타집단

마지막으로 드라마에서 인물의 개인적 특성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는 경우는 기타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더킹 투하츠>의 ‘봉봉’은 인종적으로는 백인 여성이지만 국적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봉봉’은 드라마 전체에서 대사가 별로 없고 드라마 속의 주요 인물들과 어떠한 상호작용도 나누지 않는다. ‘봉봉’은 드라마의 클러M과 존 마이어의 국제적 성격과 잔인성, 비인간성을

드러내고 있다.

연도	방송사	제목	이름	출신지 · 인종	비 중	성 별	연 령	직업
2012	MBC	더킹 투하츠	봉봉	백인	조	여	미	킬러
					연	성	상	

표 7. 기타집단 등장인물의 극중 비중과 인구사회학적 속성

V. 결론

한국 드라마 속 외국인 배우의 등장은 실제 한국사회의 민족적 경정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이다. 그런데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외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적 묘사가 드러날 경우 드라마를 즐겨보는 한국인에게 무의식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한국 드라마에 과연 외국인이 얼마나 등장하고 어떤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분석해 한국의 다문화주의를 점검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가지고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간 지상파 3사 방송사인 KBS와 MBC, SBS에서 방영되었던 드라마를 내용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기간 내 KBS와 MBC, SBS에 방영된 드라마 편수는 총 512편으로 이 가운데 외국인이 등장하는 드라마는 모두 33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대비 6.4%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방송사 별로는 KBS가 5.9%, MBC가 6.1%, SBS가 7.0%로, 모두 10%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이 등장하는 드라마의 제작추이를 살펴본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목할 만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국내 드라마에서의 외국인의 역할비중과 인구사회학적 속성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외국인 배우의 역할은 단역이 가장 많고 연령은 20, 30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경제력의 측면에서는 우세집단과 열세집단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모습이었다. 하

지만 이들을 몇 개의 권역 및 인종으로 나누어 재분석하니 또다른 결과가 나왔다. 우선, 미국계 백인, 백인혼혈의 경우 여성보다는 남성이 대다수로, 주연과 조연의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며 경제력은 우세집단에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 동남아시아권과 중앙아시아권의 경우 주연이나 조연이 있긴 하지만 단역에 비해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다. 또한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고 20대 사회하류층이 대다수인 것으로 재현됐다. 한편, 일본과 중국의 경우 단역의 비중이 높으며, 여성과 20대가 많고 경제력은 비교적 우세집단에 속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끝으로 한국 드라마에서 외국인이 어떠한 유형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크게 ‘동경집단’ 과 ‘동정집단’, ‘근접집단’, ‘기타집단’ 으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내 드라마에서 미국인이나 미국계 백인 혼혈인은 대개 동경집단에 속해 있으며 긍정적인 분위기로 묘사되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외모가 수려하고, 호감을 주는 성격을 지닌 것으로 그려졌다. 또한 직업도 의사, 변호사 등 비교적 전문직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경집단과는 달리 동남아시아인과 중앙아시아인, 그리고 흑인 혼혈인이 속한 동정집단은 대개 어두운 이미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 그려졌다. 이들은 남녀, 연령 불문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이나 혼혈자녀의 경우 폭력이나 소위 왕따를 당하는 등 사회적 차별을 받는 것으로 재현되었다. 한편 근접집단은 한류에 영향을 받거나 한국에 관심이 있어 한국을 찾은 일본인과 중국인 등 동북아시아권의 외국인 등장인물을 포함한 집단으로, 한국인에게 비교적 친숙하게 다가온다. 한국 드라마에서 일본인과 중국인은 과거 특수한 역사적 관계 때문에 주로 시대극에서 많이 등장하고, 현대극에서 등장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드라마에서 일본인의 경우 대부분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이며, 이 가운데 특히 일본여성은 한국남성들이 선호하는 순정적인 여성으로 재현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일부에서는 고정된 이미지를 탈피해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외국인의 삶을 재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드라마 <보석비빔밥>에서 승려 지망생으로 출현한 미국인 ‘카일’과 <옥탑방 왕세자>에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입맛을 가지고 한국의 문화를 접하는 우즈베키스탄인 ‘베키’가 바로 그들로, 비정형화된 모습으로 드라마에 등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종류의 드라마는 전체 드라마에서 단 두 편에 불과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국내 드라마에 출연하는 외국인 등장인물은 대체로 정형화된 이미지와 한정된 역할로 그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드라마 속 설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현실에서 외국인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인식에 무의식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외국인 등장인물의 이미지가 현실 세계로 전이되면서 해당 인종의 이미지로 그대로 고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백인은 동경하고 지지하지만 흑인이나 유색인종은 동정하거나 무시하는 인종적 위계 의식을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대중매체에서 외국인 인물을 등장시킬 경우에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은 최대한 줄이고 이들의 다양한 면모를 반영하는 작업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동안 국내 드라마를 분석하는 대다수의 선행연구의 경우 특정 드라마 한편이나 두 세편을 선정해 드라마 안에 담긴 내용과 의미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번 연구처럼 장기적인 흐름 속에서 드라마 전체를 다룬 연구는 없었기에 이러한 점에서 연구의 이론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이 연구는 향후 국내 드라마가 외국인 등장인물에 대해 편견적 묘사는 자제하고 다양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미도 찾을 수 있다. 이 같은 연구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드라마 전부를 보고 내용을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내용분석을 통한 현상만은 기술했기 때문에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는지 원인과 과정을 설명하기 힘

든 점이 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외국인 등장 드라마의 제작진과 심층면접을 진행해 현재의 연구결과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토연구원, 『국토비전 2050 수립추진Ⅱ』, 2010.
- 강희원,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요인과 통합정책」. 『국가정책연구』, 2006, 20권 2호, 5~34.
- 김명혜, 「<황금신부>를 통해 본 한국의 민족적 정경(ethnoscape)」. 『프로그램/텍스트』, 2008, 17호.
- 김세은·김수아, 「다문화사회와 미디어의 재현 :외국인 노동자 보도 분석」. 『다문화사회연구』, 2008, 제1권 1호, 39-73.
- 김예란, 「한국의 사회적 약자 관련 보도 현실: 언론인들의 자기 성찰적 평가를 중심으로」. 『저널리즘 평론: 사회적 약자』, 2005, 통권 21호, 63-103, 서울: 한국언론재단.
- 김예란·유단비·김지윤, 「인종, 젠더, 계급의 다문화적 역학: TV ‘다문화적 드라마’의 초국적 사랑 내러티브와 자본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2009, 17권 1호, 2-41.
- 백선기, 「한국 언론의 소수자·약자 보도경향과 사회문화적 함축 의미」. 『저널리즘 평론: 사회적 약자』, 2005, 통권 21호, 10-62, 서울: 한국언론재단.
- 이명현, 「타자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공룡 돌리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2009, 40호, 169-187.
- 이선옥,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자운동과 다문화주의,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의 현실과 쟁점”, 《국경없는 마을》 학술토론회 발표논문, 2007, 76~89.
- 정의철·이창호, 「혼혈인에 대한 미디어 보도 분석: 하인스 워드의 성공 전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2007, 51권 5호, 84-476.
- 행정안전부,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2013.
- Bogle, D. *Toms, Coons, Mulattoes, Mammies, and Bucks: An Interpretive History of Blacks in American Films*, New York: Continuum, 2001.
- Dixon, T. L., & Linz, D. Overrepresentation and underrepresentation

- of African Americans and Latinos as lawbreakers on television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2000, 50(2), 131-154.
- Dixon, T. L., & Linz, D. Race and the misrepresentation of victimization on local television news. *Communication Research*, 2000, 27, 547-573.
- Entman, R. Representation and reality in the portrayal of Blacks on network television news. *Journalism Quarterly*, 1994, 71, 509-520.
- Guerrero, E. *Framing Blackness: The African American Image in Film.*,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1991.
- Harwood, J., & Roy, A. Social identity theory and mass communication research. In J. Harwood & H. Giles (Eds.), *Intergroup Communication: Multiple perspectives* 2005, (Vol. 2, pp. 189-212). New York: Peter Lang.
- Kim, S. The birth of the local feminist sphere in the global era: 'trans-cinema' and Yosongjang. *Inter-Asian Cultural Studies*, 2003, 4(1), 10-24.
- Lippmann, W. Public opinion. 1957, New York: Macmillan.
- Mastro, D. Effects of racial and ethnic stereotyping. In J. Bryant & M. B. Oliver (Eds.),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2008, NY: Routledge.
- Morgan, Shanahan, & Signorielli. Growing up with television: Cultivation processes. In J. Bryant & M. B. Oliver (Eds.),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2008, NY: Routledge.
- McArthur, L. Z., & Resko, B. G. The portrayals of men women in American television advertisement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975, 97, 209-220.
- Park, S., Holody, K. J., & Zhang, X. Race in Media Coverage of School Shootings: A Parallel Application of Framing Theory and Attribute Agenda-Setting.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2012, 89(3), 475-494.
- Romer, D., Jamieson, K., & DeCoteat, N. The treatment of persons

of color in local television: Ethnic blame discourse or realistic group conflict. *Communication Research*, 1998, 25, 286-305.

Shohat, E. & Stam, R. *Unthinking Eurocentrism: Multiculturalism and the Media.*, 1994,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ABSTRACT

**Multiculturalism and Representation of
Racial Others in Korean TV Dramas**

Hye Yeon Ju · Kwang Woo Noh

This study examines the ethnoscape of TV dramas on three Korean nationwide television channels from 2005 to 2012 by breaking down how many non-Koreans appear and how they are represented. Among all TV dramas, 6.4% show non-Korean characters of which are generally supportive or small roles. These characters are categorized into four groups: adoration, sympathy, proximity, and other. The adoration group consists mostly of white males from USA or Europe that have professional careers such as medical doctors or lawyers and are positively represented with attractive appearance and nice character. On the other hand, the sympathy group is made up of Southeast, Central Asians and blacks. They are mainly represented as an underprivileged group: females and low-paid workers. In the proximity group are the Japanese and Chinese characters. The Japanese are often represented as rich people that are highly competent or are able to easily cooperate with Koreans. This result shows that Korean TV dramas provide racial and ethnic stereotypes. Though rarely, some dramas represent various lives of foreigners and racial others in Korea.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stablishment of sound multiculturalism by analyzing representation of racial others in TV dramas and internalized stereotypes of foreigners in the diverse and multicultural Korean society.

Keywords : Foreigner, Racial minority, TV Drama, Multiculturalism, Stereotype

주혜연 (주저자)
고려대학교 대학원 언론학과 박사과정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potato77@korea.ac.kr

노광우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정보문화연구소 연구원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nkw88@hanmail.net

논문투고일 : 2013.07.29
심사종료일 : 2013.08.25
게재확정일 : 2013.09.02